

금강대학교 2020학년도 학위수여식

식사

금강대학교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금강대학교를 믿고 자녀를 보내주시고 뒷바라지해주신 가족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월원각대조사님의 유지에
따라 2003년 금강대학교를 창립하시고, 전교생 장학금을 비롯하여
아낌없는 지원으로 오늘 15회째 졸업생을 배출하시는, 종단과
학교법인 이사장님 그리고 이사님들께 학교 교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아울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은 4년의 학사학위 과정이나 2년의
석사학위 과정 혹은 3년의 박사학위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특히, 이번 졸업생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지구촌에 들이닥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상황을 잘
견디어 내면서, 마지막 학년을 잘 마무리 해주었습니다. 총장으로서
그리고 여러분을 직접 가르친 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대견하고
고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랑스러운 졸업생 여러분! 오늘 금강대학교 교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서 활동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에 총장으로서 몇 가지 기대와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이 그동안 금강대학교에서 습득한 지혜와 지식을
사회에 나아가 마음껏 펼치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제 인생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지난 50여 년의 시기를 국내외 대학에서 학생

혹은 교수로서의 삶을 살아 온 대학인입니다. 이처럼 반세기 넘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언하건대, 여러분은 한국에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실속 있게 전문지식을 학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입증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게 되든, 자신이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는 한국 최초의 서구식 리버럴아츠 대학(LAC)인 금강대학교에서 ‘소수정예’로 배양된 인재라는 자랑스러운 사실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능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고,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당부하고 기대합니다.

둘째, 여러분이 사회에서 활동하면서 그동안 금강대학교에서 체득한 ‘어진 인(仁)’의 인성을 바탕으로 하는 리더십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후기산업화와 후기민주화 시대에 한국은 오히려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그로 인해 온갖 유형의 갈등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금강대학교 졸업생으로서 여러분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비롯하여 모든 이들과 더불어 보살피고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한 알의 ‘씨앗’이 되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서구식 기숙대학(RC)의 환경에서 생활하고 공부하면서, 이기주의가 아닌 협동의 자세를, 단순한 전문지식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의 정신을 체득할 수 있었던, 진정한 의미의 인재로 키워졌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한 인재가 바로 이 시대에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요, 우리가 갈구하는 리더의 이상형임을 이 자리에서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셋째, 사회에 나아가서도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세를 유지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했듯이, 여러분이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21세기는 끊임없이 평생학습이 필요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전 지구화와 인공지능(AI)이 보편화되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새로운 내용의 전문지식을 습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금강대학교에서 습득한 지식은 앞으로 평생학습을 이어가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쯤에 해당한다고 여겨도 좋을 것입니다.

금강대학교는 이와 같은 사회변화와 미래 교육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획기적인 혁신방안을 지금 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2023학년도부터 적용하게 될 새로운 교육 혁신의 방향은 미국의 명문 리버럴아츠 대학들의 기숙형 교육 방식에 더해,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PPE(철학·정치행정·경제경영)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인문사회과학 중심 학부대학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면적인 영어 강의를 토대로 토론식의 역진형 학습(Flipped Learning)과 심층학습(Deep Learning) 등 첨단 학습 방식을 도입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미네르바 대학의 운영방식도 적극 벤치마킹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금강대학교 학생들은 근대화에 앞선 서양 학문에 더해, ‘상월학’의 정신이 스며들어 있는 진정한 의미의 동서양 융합학문을 한 층 더 심화된 내용으로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어진 인(仁)의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고등교육기관으로 발전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금강대학교가 인공지능(AI) 시대에 우려되는 인간성 상실과 공동체 정신 해체를 극복하기 위한 세계적인 선도 대학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넷째, 금강대학교와의 인연을 여러분이 소중히 간직하고 가꾸어 나가기를 당부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현실 세계의 사회생활은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 울타리 안에서 지내던 시기에 비해 훨씬 어렵고 냉혹한 시기가 여러분

앞에 전개될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면 한국의 영산 계룡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는 아름다운 금강대학교 교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교정에 가득 핀 벚꽃.목련꽃.영산홍, 연잎과 연꽃 사이로 잉어가 헤엄치는 연못, 색색으로 교정을 수놓은 초파일의 연등 ... 신비스러운 정도로 아름다운 이곳 교정에서 여러분이 보냈던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분기하여 당면한 현실의 문제에 도전하십시오. 물론 여러분이 학교를 다시 찾아와 주셔도 좋습니다. 금강대학교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언제든 여러분을 반갑게 맞아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돌아와서, 자신이 당면한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상담하고 해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저와 교직원 선생님들은 늘 대비하고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금강대학교 졸업생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해 왔듯이, “한번 금강인이면 영원한 금강인”입니다. 금강대학교는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항상 지켜보면서, 여러분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문명에도 공헌하는, 지식과 지혜를 갖춘 소수정예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밀어주고 기원하고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졸업을 거듭 축하합니다! 그리고 사회인으로서의 힘찬 새 출발을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2. 24.

금강대학교 총장 정용덕